목포시, 2023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 건립 순항

리스크 사전 예측으로 공정관리 철저

목포시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될 제104회 전국체전의 육상과 개·폐회식이 진행될 메인스타디움인 목포 종합경기장[지상 3층, 연면적 2만6천468㎡, 총 공사비 920억원(국비 200, 도비 230, 시비 490)]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인데 철저한 공정 관리로 국가적 축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전 47개 종목 중 목포에서는 19개 종목(전국체전 11개, 장애인체전 8개)이 개최된다.

시는 현장 발생 토석(약123만㎥, 24톤 덤프 약 12만대 물량)의 외부 반출을 완료하고 지난 2021년 11월 건축 기초타파기를 시작했다. 현재는 건축 2층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작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 부재)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데 전체 공정률은 42%다. 이는 계획 대비 99%로서 정상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운동장 조성과 마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15일 민주노총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우발사항(기상 악화, 자재수급 문제, 파업 등)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리스크의 사전에 예측·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매주 시공사, 감리단과의 공정회의를 통해 철저한 공정 관리로 우발사항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전기, 통신공사 등 각종 연계 공정도 철저히 관리해 내년 5월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향후 발주 예정인 전광판 및 각종 경기 계측장비에 대해서도 우수자재로 시공해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는 오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될 제104회 전국체전의 육상과 개·폐회식이 진행될 메인스타디움인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인데 철저한 공정 관리로 국가적 축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영암군, 치매예방교실 운영

영암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월10일까지 '기억팔팔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는 사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기 치매예방교실은 매주 수요일, 운영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바로알기 교육과 인지 향상을 위한 두근두근 뇌운동 체조,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인지자극 활동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음악, 운동, 원예 활동 등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노년층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아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치매예방교실 참여를 원하시면 영암군 치매안심센터(1층)에 방문하거나 전화(470-6949)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함평, 농촌협약 선정…사업비 333억 확보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국비 223억원 등 총 3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군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전담부서인 미래전략실을 주축으로 중간지원 조직(행복함평공동체지원센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농촌협약이 시행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군은 농촌협약의 우선 사업권 대상지역으로 동부사업권(함평·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을 설정했다. 이에 함평 생활권에 집중됐던 생활서비스 시설들이 동부사업권 면소재지에 고루 설치될 예정이다.

해보면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학교·나산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거점면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개선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이 지원 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와 차질없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무안, 상동 들노래 모내기 시연행사 개최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상동마을에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상동 들노래가 흥겹게 울려 퍼졌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무안 상동 들노래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무안 상동 들노래 시연행사, 모내기 체험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특히 이날 아이들은 논에 들어가 들노래를 부르며 우리 전통방식의 모내기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상동 들노래는 상동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모심기와 논매기 작업을 하며 부르던 노동요로써 지난 2001년 제28회 남도문화제 으뜸상과 개인연기상(보유자 고윤석)을 수상하고, 2002년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공로상을 수상해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2006년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된 무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김산 군수는 "매년 시연행사를 개최해 무안군의 대표 무형문화재인 상동들노래와 모내기 등 전통방식의 농경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강진군,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강진군보건소은 30일까지 읍·면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이용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내용은 ▲온열환 고위험군 ▲폭염 대비 건강수칙 ▲온열질환자 응급조치법 등이다.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의 44.6%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이 중 50.7%는 낮 시간에 발생했다.

폭염 대비 건강 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외출시 햇볕 차단하고 가벼운 옷 입기 ▲낮 12시~오후 5시 휴식하기 등이 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몸을 시원하게 해 체온을 내리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을 섭취하게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운재 기자

신안군, 섬 수국축제 개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도초도 바다위 수국정원에서 7월 3일까지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

'팽나무 10리길에서 수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수국공원, 환상의 정원을 중심으로 도초도 일원에서 열리며, 문화·전시 행사를 비롯한 스탬프투어, 해시태그 이벤트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섬 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벌써 1만 5천여 명이 수국공원을 다녀갔으며, 축제기간 그 어느때보다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초도 가는길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며, 암태 남강선착장에서 비금 가산선착장까지 차도선으로 40분이 소요되고,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이용해서 도초 화도로 올 경우 1시간이 소요된다. /박성태 기자